

# 대학생의 건강지각이 건강신념 및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이종복, 김도진\*

부천대학교 재활스포츠과 교수

##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Health Perception on Health Beliefs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Jong-Bok Lee, Do-Jin Kim\*

Professor, Dept. of Rehabilitation Sports, Buche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건강지각, 건강신념, 건강증진행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경기도 소재 대학의 대학생 3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된 설문은 문항분석과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 간 관계 파악을 위해 상관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대학생의 건강지각, 건강신념, 건강증진행위 간의 인과효과를 위한 경로분석은 다양한 적합도 지수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모형에 포함된 모든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모든 경로계수에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으나, 건강지각과 지각된 장애, 지각된 장애와 건강증진행위에서는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외된 변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건강증진행위와 관련한 외현적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키워드** : 대학생, 건강지각, 건강신념, 건강증진행위, 경로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health perception, health beliefs,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For data analysis, item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were conducted. In addition, correlat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were conduct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As a result of conducting path analysis to verify the causal effect between college students' health perception, health beliefs,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the model was relatively high in various fitness indices, and all path coefficients included in the model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Specifically,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in all pathway coefficients, but health perception and perceived disability, perceived disability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were negatively related. In subsequent studies,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analyze various variables related to health promotion behavior.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 Health perception, Health belief, Health promotion behavior, Path analysis

### 1. 서론

대학생은 사망률 또는 이환율로 측정했을 때 가장 건강한 시기이지만[1], 활동적이면서 호기심이 강한 대학생들은 자신의 발달 성장 및 사회적 관심사 등으로 위험한 행동을 할 때도 있으며, 흡연과 음주, 불규칙한 식습관 등[2] 건강과 매우 밀접한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대학생은 건강에 해로운 경험에 노출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도의 성장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는 청소년 시기를 건강한 성장과 함께 발달을 위한 활동보다는 지시적이고 보호적이면서 치열한 입시와의 전쟁과 중압감 속에 시달리며[3] 건전한 건강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 이러한 시기 이후 대학에 입학하고 자율적이면서 오픈된 환경을 처

\*Corresponding Author : Do-Jin Kim(taehab@hanmail.net)

Received December 1, 2020

Accepted February 20, 2021

Revised January 14, 2021

Published February 28, 2021

음 경험하고 건강행위와 관련된 위험에 노출된다[4].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학생의 건강에 대한 지각은 건강한 대학생을 맞이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중년이후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건강지각과 관련하여 Jeong[5]은 인간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지각하는 것에 따라 행동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지각에 따라 그 행동양상이 달라진다고 보고하였으며 결국 건강지각이란 인간의 행위를 지배하는 본인스스로의 주관적 판단이며, 인간의 모든 건강행위에 있어 현재의 건강과 과거의 건강, 그리고 미래의 건강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5].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건강에 대한 지각은 대학생으로 하여금 본인의 건강상태를 인지하고 필요행동과 불필요행동에 대한 의사결정, 미래에 대한 건강계획 및 사회생활에서의 직업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신념은 지각의 민감성과 심각성, 지각되거나 지각된 유익성, 장애성으로 구분되는데, 민감성은 개인의 특정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지각의 정도이며, 심각성은 개인의 특정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 그 질병이 자신에게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거라 믿는 정도로서 민감성과 심각성에서는 어떤 질병에 대한 위협 인식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건강신념은 건강과 관련된 행위와 깊은 관련성이 있으며 이는 건강신념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건강과 관련한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5].

건강증진행위는 건강한 생활방식 등을 증가시키기 위한 개인적이면서 지역사회 활동이라 판단되며 이와 함께 안녕의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자아실현과 각각의 개인적 만족도를 유지 또는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행해지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6] 건강지각이나 건강신념과 관련하여 인과적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강신념모델과 관련하여 Tirrell[7], Biddle[8]은 건강신념모델을 운동행동 등에 적용하여 건강에 관한 지식 및 신념이 운동참여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Rosenfeld et al[9]은 인간이 질병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일정한 신념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특정 질환에 민감하고 질환이 심각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지각하여 어떤 행위가 유익한지 그렇지 않은 판단할

신념이 있어야 건강행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Han[10]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 또는 개인적 습관을 변화시켜 최고의 안녕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행위로서 안녕 수준, 자아실현 정도 및 자기 성취를 유지, 증진을 위한 접근행위로 평균수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건강증진행위의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생활양식의 변화를 강조하고 그 이유로는 예방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을 때 건강증진을 위한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는 건강증진행위와 관련하여 생활양식의 변화 등을 통해 질병에 노출되기 전 건강에 대한 지각, 신념과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건강지각과 건강신념, 건강증진행위의 관계를 살펴보고 건강의 중요성과 함께 관련분야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조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대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을 상세히 설명하고 응답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자료분석에 이용된 설문지는 총 309부이며, 응답과정에서 불성실한 또는 결측 등을 포함한 자료는 평균으로 대체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item	division	frequency	ratio(%)
gender	male	108	35.0
	female	201	65.0
line	engineering	68	22.0
	humanities	58	18.8
	nature	71	23.0
	art	112	36.2
exercise	participation	187	60.5
	non-participation	122	39.5
exercise shape	non-competition	120	64.2
	compete	67	35.8
career	less than 1year	109	35.3
	1-3years	111	35.9
	more than 3 years	89	28.8

구체적으로 성별은 남자가 108명(35.0%), 여자가 201명(65.0%)이며, 계열은 공학 68명(22.0%), 인문 58명(18.8%), 자연 71명(23.0%), 예체능 112명(36.2%)으로 나타났다. 운동참여는 참여 187명(60.5%), 미참여 122명(39.5%)으로 조사되었으며, 운동형태는 비경쟁스�포츠 120명(64.2%), 경쟁 67명(35.8%)이었다. 운동 경력은 1년 미만 109명(35.3%), 1~3년 111명(35.9%), 3년 이상 89명(28.8%)으로 조사되었다.

## 2.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일반적인 특성 5문항, 건강지각 10문항, 건강신념 36문항, 증진행위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 기술통계,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를 검증 실시하였다.

### 2.2.1 건강지각

건강지각 질문지는 Ware[11]가 개발하고 국내에서 Lee[12]이 변안, Kim[13]가 수정,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주요문항의 내용은 '건강에 자신이 있다', '가끔 건강을 걱정할 때가 있다.', '건강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등이며, 총 10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에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추정된 신뢰도  $\alpha$ 계수는 .93로 나타났다.

### 2.2.2 건강신념

건강신념 질문지는 Becker[14]의 건강신념모델을 기초로 Lee[15], Lee[16]이 사용한 건강신념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건강신념을 지각된 심각성 10문항, 지각된 개연성 10문항, 지각된 장애 10문항, 지각된 이익 6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여 최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으로 최고점은 5점(매우 그렇다)을 구조화하였다. 주요 문항의 내용은 '나는 타인보다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나는 건강이 악화되거나 질병에 걸리면 가정생활은 힘들어 질 것이다', '규칙적 운동 참여는 질병 발생이나 건강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면 질병 발생 또는 건강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식이조절을 위해서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기에는 힘들다' 등이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추정된 신뢰도  $\alpha$ 계수는 .77 ~ .93의 범위로 나타났다.

### 2.2.3 건강증진행위

건강증진행위 질문지는 Rosenfeld[9]에 의해 개발된 척도를 Lee[16]이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단일요인 6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이 척도는 '나는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상당히 사라졌다', '나는 건강을 위한 운동을 시행 하면서 체력증진이 되고 있다' 등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추정된 신뢰도  $\alpha$ 계수는 .84로 나타났다.

## 2.3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 표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의 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표집된 자료는 대상자 특성과 문항분석을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단일차원 확인 요인분석과 내적일관성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건강지각과 건강신념, 건강증진행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모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의 유의수준은  $\alpha = .05$ 이며, SPSS 25.0과 AMOS 25.0을 이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조사도구의 타당도

조사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각 요인별 단일차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모형에 대한 검증을 위해 각 척도별 하위요인의 단일차원모형과 자료 간의 일치도 정도를 나타내는 RMSEA, TLI, CFI 등을 활용하여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단일차원 요인모형에서 RMSEA .08이하, CFI .90이상, TLI .90이상을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건강지각, 건강신념, 건강증진행위간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합점수를 이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인과효과 검증을 경로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 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tool	sub factor	items	$\chi^2(df)$	CFI	TLI	RMSEA	$\alpha$
health perception	-	10	(35)	.913	.911	.058	.93
health belief	perceived severity	10	53.65(35)	.928	.917	.062	.88
	perceived probability	10	48.24(35)	.948	.939	.048	.93
	perceived disability	10	55.27(35)	.911	.910	.069	.87
	perceived profit	6	16.88(9)	.931	.924	.055	.77
health promotion behavior	-	6	21.57(9)	.899	.887	.071	.82

3.2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대학생의 건강지각, 건강신념, 건강증진행위간의 인과효과를 검증 하기 앞서 잠재변인들의 하위 요인 간 상관행렬과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의 Table 3과 같다. 상관행렬에서 대부분의 모든 계수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을 나타냈으나, 건강지각과 지각된 장애, 지각된 장애와 건강증진행위요인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계수를 보였다. 잠재변인들의 하위요인의 평균은 3.18 ~ 3.52의 범위를 갖으며, 이때 합 점수의 왜도 및 첨도는 ±2.0 이하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matrix and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1	2	3	4	5	6
health perception	1.00					
perceived severity	.34**	1.00				
perceived probability	.32**	.24**	1.00			
perceived disability	-.21**	.17**	.30**	1.00		
perceived profit	.41**	.29**	.22**	.28**	1.00	
health promotion behavior	.42**	.33**	.31**	-.28**	.39**	1.00
M	3.52	3.18	3.22	3.17	3.32	3.48
SD	.87	.78	.79	.88	.91	.93

\*\*p<.01

3.3. 경로모형

대학생의 건강지각, 건강신념, 건강증진행위간의 인과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모형에서 측정변인은 각 척도의 단일차원검증 결과를 기초로 합점수로 사용하였다. 구체적 결과는 다음의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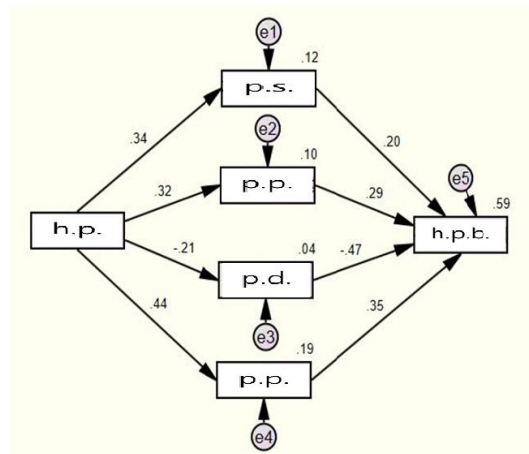


Fig. 1. Results of verification of causal effect of path model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chi^2(7) = 101.05$ , CFI= .917, TLI= .901, RMR= .129, RMSEA= .068로 나타났다으며, 모든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비교적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건강지각은 지각된 심각성, 개연성, 이익요인과 유의미한 양적(+) 경로계수를 나타낸 반면, 지각된 장애와는 유의미한 부적(-.21)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건강신념의 하위요인과 건강증진행위간의 인과효과는 지각된 심각성, 개연성, 이익과 건강증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양적(+) 경로계수를 나타내었으나, 지각된 장애는 유의미한 부적(-.47) 경로계수를 보였다. 건강지각과 건강증진행위의 직접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완전매개모형에서 전체효과는 .415[=(.34\*.20)+(.32\*.29)+(-.21\*-.47)+(.44\*.19)]로 나타났다.

####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지각, 건강신념, 건강증진행위의 인과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논의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건강지각, 건강신념, 건강증진행위의 상관행렬에서 대부분의 모든 계수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나, 건강지각과 지각된 장애, 지각된 장애와 건강증진행위요인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계수를 보였다. 이는 건강지각의 긍정적 요인과 건강신념의 부정적 요인의 결과에 따른 부적 상관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역시 건강신념의 지각된 장애와 건강증진행위의 관계에서 부정적 요인과 긍정적 요인에서 나타나는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건강지각과 건강신념의 관계에서 Pender[17]는 건강은 환경적, 생리적, 문화적,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며, 개인이 어떻게 건강지각을 하고 있는냐에 따라 주변의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 결정된다고 하였으며, 결국에는 건강지각은 인간 행위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라고 보고하였다. 건강지각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건강에 대한 회상과 예측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신념은 건강과 관련된 개인의 예방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고 개인이 어떻게 질병을 회피하고자 하는 모델을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건강지각은 건강신념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건강지각의 지각된 심각성, 개연성, 이익요인과 유의한 양적 경로계수를 나타낸 반면, 지각된 장애와는 유의한 부적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Jeong[5]의 연구에서 건강체력, 사회적 지지가 건강지각, 건강신념에 있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 활동에 대한 참여가 이러한 건강지각, 건강신념에 대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고 하였다.

건강신념과 건강증진행위의 관계에서 건강증진행위는 개인 건강수준의 유지, 자아실현 그리고, 자아유지 및 증진, 자아 발전과 발달을 시키는 것으로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위와 일상생활과의 관련된 양식과의 변화 또는 건강행동을 찾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18].

본 연구에서 건강신념과 건강증진행위는 유의한 영

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건강신념의 하위요인과 건강증진행위간의 인과효과는 지각된 심각성, 개연성, 이익과 건강증진의 관계에서 유의한 양적 경로계수를 나타내었으나, 지각된 장애는 유의한 부적 경로계수를 나타냈다. Kim[19]은 축구동호회 참여자의 건강신념과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분석에서 건강신념의 하위 요인이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건강신념에서 민감성, 심각성 그리고 유익성이 높을수록 건강책임을 높게 인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학생의 건강지각, 건강신념 그리고 건강증진행위의 인과관계가 유의미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건강지각, 건강신념, 건강증진행위의 관계에서 각 요인별 경로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를 높이고자 하였다.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대학생의 건강지각, 건강신념은 건강증진행위에 중요 변인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건강지각의 수준과 건강신념에 대한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면 건강증진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건강증진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인과관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건강지각, 건강신념, 건강증진행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경기도 소재의 대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상세히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총 309부이며, 연구대상의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 기술통계 중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도구의 문항분석과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변인 간 관계 파악을 위해 상관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잠재변인간 인과효과 탐색을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관행렬에서 대부분의 모든 계수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나, 건강지각과 지각된 장애, 지각된 장애와 건강증진행위요인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둘째, 대학생의 건강지각, 건강신념, 건강증진행위간의 인과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은 다양한 적합도 지수

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모형에 포함된 모든 경로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모든 경로계수에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으나, 건강지각 → 지각된 장애, 지각된 장애 → 건강증진 행위는 부적(-) 관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학생의 건강지각, 건강신념, 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사회적 변인과의 상호작용관계의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대학생 건강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데 의미 있는 정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2019 BUCHEON UNIVERSITY Research Grant.

## REFERENCES

- [1] H. S. Park & A. J. Kim.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Condition, Health Concept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in College Wome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6(2), 218-232.
- [2] M. Y. Park. (1994). A Study on Influencing Factors in Health Promoting Lifestyle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5(1), 81-96.
- [3] J. H. Kim. (2006). *A study on Factors Relation to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Gimhae: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4] J. O. Ahn, S. W. Jang, K. S. Kim & J. A. Kim. (2009). Needs, Uses and Evaluation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Among Students in a Provincial University. *Healthcare Informatics Research*, 15(1), 153-163.
- [5] J. S. Jeong.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fitness and social support, health perception, health beliefs and health promotion lifestyle of participants in leisure sports activities*. Doctoral dissertation at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Sports University.
- [6] Pender. (1982). *Health promotion in nursing practice*, Norwalk. CT. Applention and Lange.
- [7] Tirrell, B. D. & Hart, L. K. (1980). The relationship of health beliefs and knowledge to exercise compliance in patients after coronary by pass. *Heart and Lung*, 9, 487-493.
- [8] Biddle, S. J. (1999). *Applications of psychology to exercise and health-related physical activity*. 3th International Congress Asian-South Pacific Association of Sport Psychology.
- [9] Rosenfeld, O., Tenemvaum, G., Ruskin, H. & Halfon, S. T. (1990). *The effect of psychological training and efficiency in industry*. *Ergonomics*, 32, 1019-1028.
- [10] K. S. Han & G. M. Kim. (2007). Comparison to Self Esteem, Family Adaptation,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ymptoms of Stress between Nursing and Other Major University Women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6(1), 78-84.
- [11] Ware, J. E. (1979). *Health perception questionnaire Instruments for measuring nursing practice and other care variables*. Hyattsville, Maryland: DHEW Publication, 158-161.
- [12] H. R. Lee. (1985). *The effect of health contracts for the promotion of self-nursing on the health behavior of hypertensives*. Doctoral dissertation at Yonsei University.
- [13] N. H. Kim. (2009). *Health promotion lifestyle and health perception of the elderly using welfare centers*. Catholic University Master's Thesis.
- [14] Becker, M. H., Kaback M. M., Rosenstock I. M. & Ruth M. V. (1975). Some Influences on Public Participation in a genetic Screening Program, *Journal of Community Health*, 1(1), 3-14.
- [15] Y. S. Lee. (2005). *The effect of customer satisfaction for comprehensive health check-up service on re-use intention, health belief, self-efficacy, and changes in health promotion behavio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 [16] B. K. Lee, H. K. Oh, S. A. Shin & J. Y. Ko. (2008). The Influence of Media Campaigns as Behavior Clues on Influenza Prevention Behavior: Focusing on the Expansion of the Health Belief Model, *Korean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Journal*, 10(4), 1-20.
- [17] Pender, N. J. (1986). Attitude, subjective norms and intentions to engage in health behaviors. *Nuring Research*, 35, 15-18.
- [18] J. J. Kim, H. I. Cho & S. L. Jo.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promotion behaviors of the elderly participating in life dance and successful aging awareness and death acceptance

attitud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22(1), 217-231.

- [19] J. W. Kim. (2017). *The Influence of Health Conviction of Participants in Football Club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Leisure Satisfaction*. Gye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이 종 복(Jong-Bok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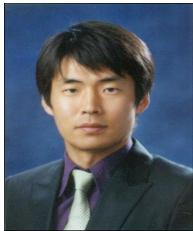
[정회원]



- 2001년 3월~현재 : 부천대학교 재활스포츠과 교수
- 관심분야 : 운동생리학, 배드민턴
- E-Mail : ljb@bc.ac.kr

김 도 진(Do-Jin Kim)

[정회원]



- 2017년 3월~현재 : 부천대학교 재활스포츠과 교수
- 관심분야 : 운동재활, 생리측정, 통계
- E-Mail : taehab@hanmail.net